

기술기획의 이론적 Background가 되어준 기술경영

한화그룹에서 그룹SW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계열사들의 경쟁력강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룹 SW경쟁력 확보방안**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해당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각 계열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다수 계열사들의 사업 특성이 SW기술과는 거리가 먼 제조업 중심이어서 SW개념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거부감입니다. 각 계열사별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그 자체도 일정이 빠듯하고 힘들 텐데 그룹차원에서 또 다른 업무를 가중 시키니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핵심 SW기술 식별이며, SW기술 로드맵 작성을 단순히 숙제 하듯 무성의 하게 작성하여 큰 벽 뒤의 작업자에게 문서 문치를 던지듯 던질 것 같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의 힘으로 계열사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업의 타당성 즉 왜 필요한가?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받게 되는 혜택을 찾아 설명과 설득을 통해 계열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2개월 동안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정도, 8개 계열사의 연구기획, 개발기획, 기술 기획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각 사의 현 상황을 식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계열사가 서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한 계열사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다른 계열사가 그 해결책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룹 SW전략이 기술 중매자가 역할을 한다면 큰 시너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가 있는 계열사와 해당 해결책을 갖고 있는 **계열사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달 동안 4건을 식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SW기술 식별과 함께 기술 세분화가 계열사 간 시너지 확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4건의 Case Study가 식별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활동은 그룹의 SW 기술 시너지 확보와 신성장 동력확보 활동에 대한 프레임 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Prahalad and Gary Hamel의 기업의 핵심역량', 'Henry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 'Clayton Christensen의 혁신기업의 딜레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SW기술 시너지 및 신성장 동력확보에 대한 프레임 워크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각 계열사들과 또 다른 인터뷰 또는 미팅을 통해 이해 및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칠 것입니다.

그룹 SW전략의 4개월의 활동을 통해 각 계열사의 핵심 SW기술을 식별 하였으며, 4 건의 계열사 간 협력 아이템 식별 및 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의 2가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그룹 SW전략 활동에 대해 각 계열사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정된 SW기술의 상세화와 SW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미래 SW기술을 식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속적인 계열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MO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MOT의 아카데미한 이론들이
기업의 실무에 많이 적용 되어,
이론과 실무가 분리되지 않는 실용적인 학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준 호
한화그룹
성균관대학교

MO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MOT의 아카데미한 이론들이 기업의 실무에 많이 적용 되어, **이론과 실무가 분리되지 않는 실용적인 학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기술경영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 입니다.

SW기술협의체 1차 워크샵

최신 기술 트렌드 정보 및 사례 공유
그룹 핵심 SW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공유
협의체 운영방안 및 주요활동 목표 논의

